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전교인 수련회

일시: 2017. 9.9-10(토-주)

장소: Honor's Haven Resort, Ellenville, NY

2017 년 7 월 안내: 이향복/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집사 /시편 119:105-112

이번 주 친교: Dennis. Jude/Patty

다음 주 친교: 오영숙/임수연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 주일에배순서

2017년 7월 9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장(통 21장) 다함께  
“다 찬양하야라”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28장(통 28장) 다함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안상민 집사

찬양(Choir)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창(Gen.) 17:1-5 인도자

설교 (Sermon) “새로운 이름 여전한 동행” 이민영 목사

\*찬송 (Hymn) 438장(통 495장) 다함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체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7. 2. 주일 설교 요약

깨어진 관계, 여전한 은혜 (창 3:1-21)

죄로 인해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 자기를 보니 수치스럽고, 남을 보니 원망스러웠습니다. 죄의 결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대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는데, 이제 수치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이,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싫고 두려워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와 벌도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서로 딱 맞는 돕는 배필이었는데 이제는 사모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그 존재 자체로 서로를 완성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욕심을 위해 갈망하거나 지배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산은 고통이 되었고 일은 수고와 투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자기 자신과, 서로에게,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아담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을 찾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두렵고 싶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을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찾으십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두렵고 싫은 옛 생명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문화와 나무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수치의 상징이 은혜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광야에 높이 들린 모세의 뿔뿔이, 갈보리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죄악의 상징, 그에 대한 징벌의 결과가 뱀이고 십자가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고통과 수고가 따르기는 하지만 해산과 일은 여전히 생명과 열매를 낳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성령님의 역사는 여전합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 문명과 문화 속에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여전히 일하고 돌보고 사랑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들만으로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는 죽었습니다. 당장 육체는 살았다 할지라도 꺾어진 가지에 붙은 꽃과도 같고,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라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형수에게 주는 기름진 음식이나 꽃꽂이 꽃에 주는 영양제가 살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기름진 음식만 준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아담에 속한 옛 생명, 하나님과 원수된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가지인 우리에게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가지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로 얻은 구원은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찬양할 분으로,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우리의 일이 수고와 투쟁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펼치는 영광된 사명으로, 서로가 귀히 여기고 사랑할 형제 자매로 회복되는 것입니다.